

학원비 인상 해도 너무한다

광주 초·중·고 보습학원 방학 틈타 기습인상

수업 횟수 늘리기 등 편법 최대 10만원 올려

“수강료만 매달 100만원 이상” 집마다 아우성

새해 벽두부터 광주 지역 유명 학원이 방학특강 등 갖가지 명목으로 학원비를 기습 인상해 경제난으로 가뜩이나 어려워진 서민가계를 압박하고 있다.

특히 일부 유명 학원들은 학생들이 몰리는 점을 악용, 많게는 배 가까이나 학원비를 올리고 있지만 교육 당국은 인력의 한계 때문에 단속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18일 광주 지역 학원과 학부모들에 따르면 학원 밀집지인 광주시 동구 장동이나 봉선동 일대의 유명 학원을 중심으로 들어 과목당 적게는 1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학원비가 올랐다.

이 중 상당수 학원은 방학을 틈타 학원비 인상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수업 횟수와 시간을 늘려잡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유명 보습학원인 A학원의 경우 지난해까지 과목당 월 15만원(주 3회·회당 90분)이던 학원비를 들어 방학 특별수업을 내세워 25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대신 수업은 2회 늘린 주 5회, 시간도 회당 20분 늘린 110분으로 조정했다.

방학 특강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학원비를 올린 곳도 적지 않다. 광주 동구 장동의 B학원은 지난해보다 과목당 5만원이 오른 25만원을, 학원생 700명을 보유한 영어·수학 전문 학원인 C학원은 경영난을 이유로 과목당 일괄적으로 1만 5천원을 올려 11만원을 받고 있다.

방학기간에 학생들 대부분이 2~4개 과목을 동시에 수강하는 점을 감안하면 학원 수강료만 월 100만원 이상 지출하는 정도로 상당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김현호기자 khh@kwangju.co.kr



파프리카 3색 가래떡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26일)을 앞두고 18일 화순을 '진선미 떡한과' 대표가 파프리카를 재료로 만든 떡국용 '3색 가래떡'을 뽑아내고 있다. 선명한 색상이 눈길을 끄는 이 가래떡은 일반 제품보다 1kg에 1천원 비싼 6천원에 판매된다.

/나명주기자 mnja@kwangju.co.kr



이 대통령, 지역 현안 확고한 지원 의지 표명

정부부처 후속조치 서둘러야

광주시·전남도 사업별 대응 전략 마련키로

지난 16일 광주·전남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광주시와 전남도의 대형 현안사업에 대한 확고한 지원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관련 사업 추진에 힘을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호남고속철과 J프로젝트 등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지원 약속이 구체화하라면, 해당 정부 부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특단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3면>

18일 광주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광주·전남도 업무보고에서 ▲호남고속철 조기 완공 ▲광주 R&D특구지정 ▲J프로젝트(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등에 대한 정부부처의 지원을

약속했다.

시·도는 이와 관련, 이번만은 정부가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하는 빨빠른 후속조치를 통해 사업추진에 대한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이들 지역 현안 사업들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부처의 부정적인 입장 등으로 인해 장기 표류해왔기 때문이다.

광주 R&D특구지정과 J프로젝트,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등은 정부 부처 간 이견, 또는 부처 내부의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밭이 묻인 대표적인 지역 현안사업이다. 호남고속철 역시 조기완공 시기를 놓고 국토해양부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역

민의 불만을 초래해왔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나의 (호남고속철) 완공시기 단축의지를 못 쏟아온다. 될 수 있는 한 앞당기는 것이 예산절감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나 혼자만 급한 것 같다”며 각 부처의 인식 전환을 촉구해 결과가 주목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를 사업으로 구현하기 위해 해당 사업별로 단계별 대응전략을 마련, 조만간 사업 초기 가시화를 위해 정부 부처와 조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광주 관계자는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대통령이 다시 한번 주진의지를 표명한 만큼 조만간 정책추진TF팀을 재가동하는 등 대응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총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운영기자 penfoot@kwangju.co.kr

국정원장 원세훈



경찰청장 김석기

주미대사 한덕수



<원세훈 내정자>

<김석기 내정자>

<한덕수 내정자>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신임 국정원장에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찰청장에는 김석기 현 서울경찰청장을 각각 내정했다.

또 이 대통령은 주미 대사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정했으며 한상률 국세청장의 사표를 19일 수리하고 후임 청장이 임명될 때까지 허병의 국세청 차장이 직무대리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프로필 3면>

임채진 검찰총장은 부서 장악력과 업무 능력 등이 고려돼 유임됐다. 원세훈 신임 국정원장과 김석기 경찰청장은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친 뒤 정식 임명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른바 4대 권력

기관장 인사를 마무리 지을에 따라 경제 부처를 중심으로 한 개각과 청와대 진용개편에 본격 착수했다. 청와대는 당초 설 연휴(24~27일) 이후에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를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진용이 갖춰진 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원 유임설이 나돌고 있으며, 교체될 경우 1명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내각은 강민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이운호 지식경제부 장관, 전광우 금융위원장 등 경제부처장관들이 대폭 교체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 김하중 통일부장관을 포함해 일부 외교안보 부처와 사회 부처 장관들도 교체 전망이 나오는 등 5~6명 선 이상의 중폭 개각설이 나오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파마오우(范冰冰) 글로벌 리더를 꿈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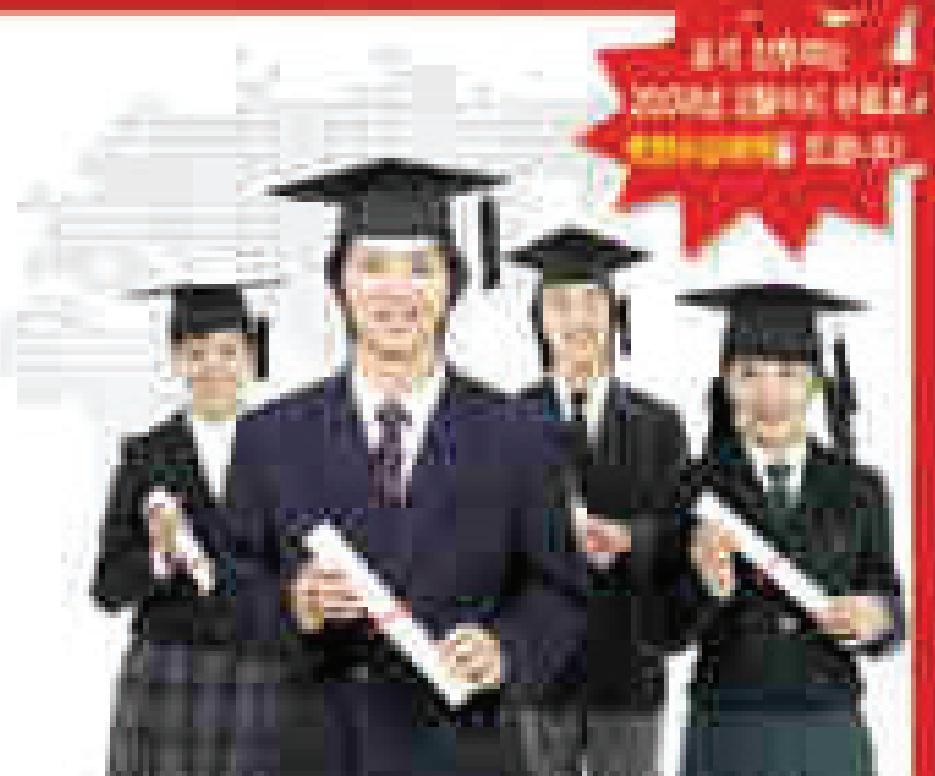
중국대학 입학반 모집

대학을 디자인해드립니다.

중국어(中國語)로 대학입학하기

한국 중국

- **파마오우(范冰冰) 글로벌 리더를 꿈꾼다.**
 - 중국대학 입학반 모집
 - 학점증, 학위증 발급, 학점증, 학위증 발급
 - 전공선택 및 학점증, 학위증 발급
- **파마오우(范冰冰) 글로벌 리더를 꿈꾼다.**
 - 학점증, 학위증 발급, 학점증, 학위증 발급
 - 전공선택 및 학점증, 학위증 발급
- **파마오우(范冰冰) 글로벌 리더를 꿈꾼다.**
 - 학점증, 학위증 발급, 학점증, 학위증 발급
 - 전공선택 및 학점증, 학위증 발급
- **파마오우(范冰冰) 글로벌 리더를 꿈꾼다.**
 - 학점증, 학위증 발급, 학점증, 학위증 발급
 - 전공선택 및 학점증, 학위증 발급



리틀자이나 中國語 学院

www.littlechina.co.kr

광주일보 후원사
리틀자이나
중국어 전문학원

